

(추석 온가족 연합예배) ■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40.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67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김승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시편 128:1~6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복되고 형통한 가정” / 전종남 목사

(A Blessed and Prosperous Family)

찬 송 / 559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예배)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가족 인도자

찬 송 / 268장, 542장

기 도 / 가족중

성경봉독 / 마가복음 2:1~12

말 씀 / “믿음이란?”

※ 추석 명절로 인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예시 → 우측)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가족 인도자

찬 송 / 438장, 543장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1~13

말 씀 /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 추석 명절로 인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순서지 별도 배부)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10/6(월) ~ 9(목) 집에서 기도

인도 /정인종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강현주 권사	윤성태 장로	한희숙 집사

10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최송태 김영덕B 이영희
헌금	김신영	이대기 김영화 박선진 최인숙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영화 김은립 김춘예 예마본 유경순 유남순 윤진태(이기숙) 이동호 정인종 최산기(김숙자) 홍종덕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연주 김영화 엄상희 유경순 유남순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경아 이상유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정충호(윤태향) 최산기(김숙자) 홍우표(윤명란) 홍종덕
교육헌금	김복례 김춘자 박주해 유경순 홍종덕
구역헌금	유초 중고 1, 4, 10구역
주일헌금	홍우표
선교헌금	2여 김복례 김홍엽 문상필 유경순

주일 오후 (10/5) 가정예배 설교예시

믿음이란? (막2:1~12)

• 찬송: 268장, 542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막2:5)

본문에는 네 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달아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그가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3~4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픈 친구는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믿음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갈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기적도,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5,12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에서 회복된 친구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갑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셋째,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4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까지 고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인식에는 중풍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여 살아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려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장애물도 뛰어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확신과 신뢰를 갖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해 바로 알고, 확신을 갖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